



지스트(광주과학기술원) 보도자료

<http://www.gist.ac.kr>

보도시점	행사 시작 후 오전 11시 30분 부터 보도 부탁드립니다.	
배포일시	2020.06.09.(화)	
보도자료 담당	홍보팀 김효정 팀장	062-715-2061
	홍보팀 이나영 선임행정원	062-715-2062
자료 문의	박성규 항바이러스 연구센터장	062-715-2511

코로나19 등 신종 바이러스에 적극 대응 “지스트 항바이러스 연구센터” 설립

- 항바이러스 분야 전문가인 지스트 교원들로 코어 그룹 구성하여 방호, 진단, 치료 및 항바이러스 집중 연구 수행
- 현재 또는 향후 감염질환 유발 신종 바이러스 출현에 따른 내·외부적인 위협 요인 제거를 위한 기술 개발 추진

- 지스트(광주과학기술원, 총장 김기선)가 감염질환 유발성 신종 바이러스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항바이러스 연구센터(센터장 박성규, 생명과학부 교수)를 설립하고 6월 9일(화) 지스트 오룡관에서 개소식을 개최했다.
 - 본 연구센터는 코로나19와 메르스(중동호흡기 증후군)과 같은 감염질환 유발성 신종 바이러스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코어 그룹을 만들어 방호, 진단, 치료 등 최고 수준의 항바이러스 연구를 위해 설립되었다.
- 센터의 주요 연구 범위는 감염질환 유발 바이러스 방호, 진단 및 백신, 치료제 등을 개발·연구하는 것으로, 나아가 감염질환 유발 바이러스 라이프 사이클(Life Cycle) 부문에서도 체계적으로 접근한다. 신종 바이러스로 인한 다양한 문제를 분야별 융합과 전략적 연구를 통해 항바이러스 연구모델 구축과 대응 기술개발을 수행하고자 한다.
 - 특히 현재 진행중인 코로나19 대응 기술개발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중

식 이후에도 새롭게 출현하는 신종 바이러스 문제에 지스트가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스트의 연구역량이 국제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항바이러스 부문에서 최고의 연구성과 도출을 목표로 한다.

- 본 연구센터는 항바이러스에 대한 다학제적 연구를 위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인 전문가협의체를 구성하였다. 연구센터 내 참여 연구자들은 방호 분야, 진단 분야, 치료제 분야, 백신 분야 및 기전연구를 위한 세부 분야로 나뉘어 운영된다.
 - 센터장인 박성규 교수를 비롯해 ▲방호기술 분야에 최희철·권인찬·전창덕 교수, ▲진단기술 분야에 이광록·송영민·박지환 교수, ▲치료제 개발 분야에 김용철·서지원·진미선 교수, ▲백신개발 분야에 박성규·이현주·박진주 교수, ▲기전연구 분야에 전영수·오창명·엄수현 교수 등 각 분야의 연구자들은 상호 협력 및 공동 융합연구를 수행한다.
 - 뿐만 아니라 지스트의 인공지능연구소, 실험동물자원센터, 생명노화 연구소 등과도 긴밀한 협조를 바탕으로 최첨단 연구를 수행할 예정이다.
- 박성규 센터장은 “지스트 항바이러스 연구센터는 전통적인 연구 뿐만 아니라 신종 바이러스로 인한 다양한 문제를 분야별 융합과 전략적 연구를 통해 적극 수행할 예정이다” 면서 “바이러스 연구모델 구축과 대응 기술개발로 감염질환을 신속하게 진단하고 나아가 치료 방법까지 제시하는 등 항바이러스 연구의 선제적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 고 말했다.
- 한편 지스트는 올해 4월 코로나19 대응 기술개발 및 상용화 지원을 위해 긴급 현안으로 ‘코로나19’ 대응 연구과제를 공모하여 최종 6개의 과제를 선정하였다.
 - 선정된 과제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을 막는 바이오 소독제 개발(권인찬 교수), ▲코로나19 main protease (3CLpro) 타겟 저해약물 및 식품 보조 물질의 발굴을 통한 바이러스 감염 예방 및 치료 기술 개발(김용철 교수), ▲입국자 모니터링용 고신뢰도 패치형 산소포화도/온도 센서(송영민 교수), ▲15분내 정확성을 가진 COVID-19 및 유사 CoV 감염

